

대한민국의 일, 독립정신

월간  
旬國

2023  
8

통권 제391호 [www.soongook.com](http://www.soongook.com)

# 순국



광복회



사단법인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 SPECIAL THEME

광복 제78주년 특집

일제 말기 상황과 국내외 한국인의 대응

### 순국 특별 초대석

이종찬 광복회 회장

### 아름다운 사람들

이달의 순국선열 | 전해산 의병장·윤희순 선생  
향기나는 삶 이야기 | 박경주 순국선열유족회 이사

### 역사의 시선으로

순국스크랩 | 재일한인 독립운동사의 신조명②

### 길 따라 일 따라

순국 역사 기행 | 중국 관내 독립운동, 그 현장을 가다③



우수콘텐츠집지  
2023

강원도 춘천시 의암공원 내 '윤희순상'

## 미국 최대의 도시 뉴욕에서 한국의 독립을 외치다

# 1883년 조약 체결 후 보빙사 외교사절 파견 한인들 일찍부터 외교독립운동 펼쳐

글 김도형(월간『순국』 편집위원)

미국 최대의 도시 뉴욕에서 조선의 외교사절 '보빙사'는 1883년 9월 18일 미국 대통령에게 국서를 봉정하여 국제외교 무대에 등장하였다. 또 한인들은 1917년 10월 말 뉴욕 맥알핀 호텔에서 개최된 소약국민동맹회에 박용만을 대표로 파견하였다. 뉴욕의 한인들은 일찍이 공제회와 신한회 등 단체를 결성하고, 뉴욕한인교회를 중심으로 단결하며 유학생을 중심으로 『삼일신보』를 창간하는 등 독립운동을 펼쳤다. 지난호에서 멕시코 메리다지역 한인들의 활동을 살펴본 데 이어 이번호에는 뉴욕 지역 한인들의 활동을 살펴보기로 한다. 앞으로 계속해서 미주지역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한인들의 독립운동과 생활상 등 관련 동향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 조선의 외교사절 '보빙사', 미국 대통령에게 국서 봉정

올해는 우리나라의 외교사절이 미국에 최초로 파견되어 미국 대통령에게 조선 국왕의 국서를 제정한 지 140주년이 되는 해이다. 1882년 5월 22일 체결된 「조미수호통상조약」 제2조에 따라, 조선과 미국은 공식 외교사절을 파견하기로 하였다. 1883년 1월 미국정부는 조선에 푸트(Lucius H. Foote)를 특명전권 공사로 파견하고, 서울에 미국공사관도 개설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에서도 미국에 상주공사를 파견할 수는 없지만, 대미 외교사절로 보빙사(報聘使)를 파견하였다.

조선은 열강의 간섭으로 벗어나 독자적인 문물을 견학하기 위해 '보빙사'를 미국에 파견하게 되었다. 미국에 파견될 보빙사의 전권대신으로 민영익, 부대

신으로 홍영식, 종사관으로 서광범이 임명되었다. 미국에 도착한 보빙사들은 워싱턴에서 미국대통령에게 국서를 제정하고자 하였으나, 마침 대통령이 뉴욕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뉴욕으로 가게 되었다. 조선의 대미외교사절 전권대신 민영익을 비롯한 '보빙사' 일행이, 1883년 9월 18일 오전 11시 뉴욕 피브스 애브뉴 호텔(Fifth Avenue Hotel) 대접견실에 채스터 아더(Chester Arthur) 대통령에게 국서를 봉정하였다.

보빙사들의 국서 제정식은 조선의 전권대신 민영익, 부대신 홍영식, 종사관 서광범 3명의 외교사절들이 일렬종대로 국서 제정 식장에 들어섰다. 접견실 문 앞에서 아더 대통령이 내다보고 있는 가운데, 보빙사들이 이마에 손을 얹고 무릎을 꿇고 큰 절을 하였다. 아더 대통령을 중심으로 오른편에 프릴링하이



1883년 미국에 파견된 조선 외교사절 보빙사와 퍼시벌 로웰  
(Percival Lawrence Lowell, 앞줄 오른쪽 끝)

젠(F. T. Frelinghuysen) 국무부장관, 윈幡에 국무부 차관보가 접견실 중앙에 서 있고, 그 뒤에 국무부 직원들이 도열하고 있었다. 민영익 전권대신은 아서 대통령에게 '한글 국서'를 봉정하였다.

국서를 봉정한 조선의 외교사절인 보빙사 일행은 미국의 선진적인 문물을 견학하였다. 보스톤으로 가서 외국박람회와 월코트 시범농장과 여러 직조공장들을 시찰하였다. 뉴욕으로 와서 뉴욕병원, 웨스턴

#### THE COREAN OFFICIAL DOCUMENTS.

Fac-Simile of the Commissioner of Min Yung Ik and Hong Yeng Sik from the King of Tah Chosun to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뒤 미 국 빙 님 서 험 덕 계 쿨 월 을 오 니 일  
뒤 표 천 국 된 군 주 도  
귀 죽 익 보 여 신 홍 영 식 을 흥 차 하여  
각 동 러 우 미 전 권 대 신 민 대 이 의 과 부  
이 두 나 라 이 도 앙 을 박 구 고 학 의  
국 빙 구 십 이 낸 국 서 을 신 이 일  
이 린 렌 더 켜 헤 실 빙 이로

미국 대통령에게 제정한 국서

유니온 전신회사, 소방서, 우체국, 티파니 상점 등을 시찰하였고, 조미 교역 확대를 위해 뉴욕시 당국과 협의하였다. 보빙사들은 뉴욕의 발전된 문명에 매우 감명을 받았다.

조선 보빙사 국서 제정식은 한국과 미국과의 정상적인 국교관계가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보빙사의 미국 방문은 조선정부의 눈으로 서구문물과 제도를 견문한 첫 번째 사례가 되었다. 미국에서 외교활동을 마



보빙사가 국서를 제정한 뉴욕 5번가 호텔



미국 신문『뉴욕 트리뷴』에 보도된 보빙사 관계 기사

친 보잉사 가운데 민영익과 서광범·변수는 미국정부의 배려로 유럽을 거쳐 1884년 5월 귀국하게 되었다.

**뉴욕 맥알핀 호텔에서 개최된 소약국민동맹회**

유럽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이후 미국은 1917년 4월 6일 정식으로 참전을 선언하고 연합국의 편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소약국민동맹회의(The League of Small and Subject Nationalities) 혹은 소약국동맹회·약소국동맹회 등으로 불리는 국제회의가 1917년에 제1차 회의, 1918년 제2차 회의가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었다.

제1차 소약국민동맹회는 1917년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뉴욕의 맥알핀 호텔(Hotel McAlpin)에서 개최되었다. 제1차 대회에는 대한인국민회 하와이지 방총회가 소약국민동맹회의부터 초청을 받고 박용만을 대표로 파견하였다. 소약국민동맹회의에서 한인 대표 박용만은 개막 첫날 저녁회의 때 다섯 번째



소약국민동맥회가 개최된 뉴욕 맥알핀 호텔

로 「소약국과 피압박 민족 대회에서의 짧은 연설을 전함(A Short Address Delivered at the Congress of Small Subject and Oppressed Nationalities)」이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하였다. 박용만은 일본이 한국의 국권을 빼앗은 이후, 폭압적 지배로 인해 한국인들은 완전히 파탄되었고, 한국과 같은 속박된 소약국들이 독립이 되고 국권이 회복될 수 있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1회 소야국민동맹회의가 끝난 다음해 1918년 1월 월슨 미국 대통령은 의회 연설을 통해 '민족자결 원칙'을 포함한 14개조의 강화 조건을 제시하였다. 제1차 대전이 끝날 무렵 미주지역 한인들은 우리 민족이 독립할 좋은 기회라고 보았다. 미주 한인들은 1918년 11월 중순부터 뉴욕에서 개최될 제2회 소야 국민동맹회의를 준비하고, 뉴욕의 김현식은 북미지방총회에 소야국민동맹회의 한국 대표 파견을 논의 하자고 하였다.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에서 제2차

El Paso 114  
1966-137

A SHORT ADDRESS DELIVERED  
AT THE CONGRESS OF SMALL, SUBJECT AND OPPRESSED NATIONALITIES  
Hotel Maalpin, New York, Oct. 24, 1917.

Ladies and Gentlemen:  
Everybody on earth says America is the land of freedom and the home of democracy. That there is truth in this statement I have no doubt. But I would like to make this convention a convention of oppressed and friendless nations. I am in any way particularly glad to be here to-day, and I am especially glad that I have the opportunity to take the floor and give you a few facts about my home country. I am sorry to say that the people of my nature were mercilessly routed by the Japanese conqueror.

Koreans to-day, like the other oppressed people, are suffering a great deal under the greedy, tyrannical administration of the Japanese. Since the Japanese have established their power over Korea, Korean civilization has been entirely devastated. First of all, our long history of more than two thousand years has been destroyed. Our schools and libraries all acclaimed th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have been confiscated and public meetings and addresses to the public are never allowed in any place at any time.

Thus in this twentieth century the people who are both blind and deaf to current news of the world are Korea and the Korean peninsula. The Chinese, the Japanese, and also the Koreans. There some schools in Korea - so-called democratic schools for children, but the course of study is like that of the Japanese schools. They do not concern the study of political science, political economy, history, law and literature such as may be taught in Europe or America. In the Korean newspapers, only two or three in all, are published in Korea, but they are owned by Japanese. The Korean papers are not concerned with Japanese policy in Korea and not in behalf of the Koreans.

As to the social and economical conditions, I can hardly wait to tell the facts. Especially in large principal cities one who intends to visit this land is struck by the poverty of the people and the lack of interest for ones with his own signature. On returning we have to remember that the Korean people are not so much given to the Korean boys and girls who are hungry for western education, but the people who travel from town to another

## 제1차 소약국민동맹회 한인 대표 박용만의 연설문

소약국민동맹회의 대표자로 이승만·민찬호·정한경 3명을 선출하였다.

뉴욕의 한인을 대표하는 김현식 등은 소약국민동맹회가 개최되기 전인 1918년 11월 중순 신한회(新韓會)라는 단체를 결성하였다. 신한회의 회장은 신성구, 서기에 조병옥, 외무원에 김현식·이원익 등으로 조직하였고, 소약국민동맹회의에 참여하기 위한 의연금까지 모금하고 있었다. 1918년 11월 30일에 개최된 신한회의 특별회에서는 12개 조항의 「독립청원서」를 채택하였다. 신한회의 「독립청원서」는 12월 3일 김현식과 신성구가 미국 국무부와 상원을 각각 방문하여 전달을 시도했으나 거부당하자 파리에 있던 랜싱(Robert Lansing) 국무부장관에게 직접 우송되었다. 신한회의 독립청원 활동은 일본의 영자신문과 『재팬 애드버타이저』 1918년 12월 15일자에 「한국인들 독립을 선동하다」라는 제목으로 실렸다.

제2회 소약국민동맹회의는 1918년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뉴욕 맥알핀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제2회 대회의 주된 목표는 파리평화회의에서 소약국들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신한회에서는 미국을 상대로 독립청원 운동을 별이면서도 소약국민동맹회의에 한인 대표로 참가하였다. 김현식은 신한회 외무원으로 인도·폴란드·러시아·아일랜드·체코슬로바키아·라트비아의 대표와 함께 소약국민동맹회 집행위원회에 선출되었다.

두 차례에 걸친 소약국민동맹회의는 한국을 비롯한 약소국 민족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국제회의였다. 한국의 독립 주장은 승전국 간의 화합과 협력이 강조되던 당시 국제사회 분위기에서 크게 환영받지 못하였지만, 한국 독립문제를 국제회의에서 제기하였다

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

## 뉴욕에 조직된 한인단체들

정미조약 이후 1907년 7월 25일 뉴욕에서 안정수·신성구·서필순·이원익·차두환·안규선 등 유학생과 황용성·김승제·양홍빈·송현길·윤석규 등 구한국 관리출신들이 동족상조·항일운동을 목적으로 공제회(共濟會)를 결성하였다. 공제회는 창립 직후인 8월 1일 해이그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하고 뉴욕에 도착한 이상설과 이위종을 맞이하였다.

공제회가 만들어진 이후 뉴욕에는 한인단체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3·1운동 소식이 전해진 직후 뉴욕의 한인들은 1919년 3월 17일 대한인국민회 뉴욕지방회를 설립하였다. 뉴욕지방회의 초대 회장은 천세현, 부회장은 이봉수, 총무는 장수영, 서기 겸 재무는 박호빈 등이 선출되었다. 3·1운동 당시에는 뉴욕지방회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지만 곧 활동이 부진하여 해산하였다가, 1927년 2월 22일 다시 복설되었다. 복설된 뉴욕지방회도 활동이 없어 해산되었다가, 1935년 5월 23일에 복설되었다.

1920년 10월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교민단제」 가 공포된 이후, 1921년 3월 대한인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가 「대한인하와이 교민단」으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1924년 12월 10일 뉴욕에서 안정수·홍득수·이봉수·송세인·신성구·허정·이진일 등이 뉴욕 한인교민단을 결성하였다. 뉴욕 교민단은 이승만과 구미위원부를 지지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뉴욕에서는 국민회를 지지하는 세력과 이승만을 후원하는 교민단 간의 알력이 있었다. 그러나 1926년 3·1절에는 뉴욕 국민회와 교민단의 회원 80~90명이 뉴욕 대한인기



뉴욕한인교회 입구



1921년 3·1절 기념식이 거행된 타운홀

독교회에서 합동으로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합동 기념식은 교민단 부단장 흥득수가 사회를 맡고, 곽림대 국민회 대표의 축사가 있었고, 서재필이 연설을 하였다. 1929년에도 뉴욕 국민회와 교민단이 의사를 통일하기로 하고, 혁명의 최고기관으로 임시정부를 봉대하기로 하였다.

### 뉴욕지역 한국독립운동의 책원지, 뉴욕한인교회

미국 동부지역의 한인들은 1921년 3월 2일 뉴욕에 있는 타운홀(Town Hall)에서 1,300여 명이 참석한 대규모 3·1절 기념식이 개최되었다. 이 3·1절 기념식을 계기로 그해 4월 18일 임종순 목사에 의해 뉴욕한인교회가 설립되었다. 뉴욕한인교회의 교인들 가운데에는 당시 콜럼비아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유학생들이 많았다. 교회는 뉴욕 내 한인 민족운동의 거점이자 유학생들과 정치적 망명자들의 임시거처가 되었다.

뉴욕한인교회의 영문명은 'Korean Church and

Institute'이다. 이는 단순한 교회가 아닌 성경공부나 이민자를 위한 교육의 범위를 넘어서 한인들을 대표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뉴욕에서 생활하던 이기붕은 "뉴욕에는 한인교회가 21가에 있었고, 당시 김영섭 목사가 유학생들의 정신적 지도에 당하고 있었다"고 하였으며, 김도연도 "그 당시 뉴욕 교회에는 김영섭 목사가 주도하는 한인교회가 있었는데, 이곳에서 활발한 학생활동을 전개하였다"라고 회고하고 있다.

뉴욕한인교회는 매디슨가(Madison Avenue) 감리교회를 빌려 예배를 보기 시작하다가 감리교단의 재정지원을 받아 맨해튼 시가(459 W. 21th St.)에 독자적인 교회 건물을 마련하였다. 1927년 10월 허드슨 강변에 위치한 현재의 위치(663 W. 115th St.)로 이전하였다. 1929년 미국의 대공황으로 뉴욕 한인들도 경제적인 위기를 겪게 되자, 교회에서는 동포들에게 생활공간을 제공하였으며, 조국의 독립운동을 도모하고 후원하는 중심기관이 되었다.

이처럼 뉴욕한인교회는 미국 동부지역 한인들의 종교적·정치적·사회적 온갖 모임의 장소였다. 또한 미국 동부지역의 한인 동포와, 유학생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독립운동을 모의하고 이민생활에 친 고단한 삶의 휴식처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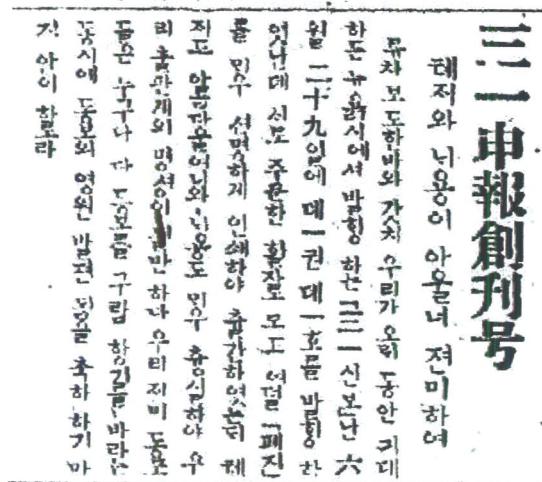
### 뉴욕의 한인들이 발간한 신문『삼일신보』

미국 동부지역의 한인 유학생들이 중심이 된 뉴욕교민단에서는 허정, 장덕수, 윤홍섭, 김양수 등이 주도가 되어 1928년 6월 29일 『삼일신보』를 창간하였다. 「삼일신보 창간 취지서」에 의하면, “이 기관은 어떠한 일부분의 세력을 대표함도 아니오, 또 그 목적 한 바가 결코 소수의 사리사익(私利私益)을 도모코자 함도 아니오니, 즉 우리의 광복대업을 위한 전 민족의 공기(公器)인 단단(斷斷) 선명(宣明)하는 바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삼일신보』는 “대한민국의 독립을 완성키 위하여 한민족이 자각을 촉성하며 민론(民

論)을 환기하며 대동단결의 기세(氣勢)를 진작케 함”이라고 주장하였다.

『삼일신보』 창간은 뉴욕교민단장 허정과 『동아일보』 특파원이기도 한 유학생 장덕수가 주동이 되었다. 신문의 제호는 3·1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킨다는 의미에서 『삼일신보』로 하였고, 노농대중을 위한 진보적 언론지를 지향한다고 하였다. 원래 창간일은 1928년 3월 1일로 하였으나, 활자가 제 때에 배송되지 않아 부득이 6월 29일에 창간호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 재정은 허정·윤홍섭·신성구 등이 담당하였고, 신문 제작은 장덕수가 주관하였다. 장덕수는 국내에서 국문활자를 구할 수 없자, 『동아일보』 사장 송진우로부터 국문 활자를 우송받았다. 신문사 사옥은 맨하탄 23가의 한 빌딩 사무실로 정하였다. 임원진은 사장 허정, 주필 김양수, 편집 장덕수·김도연·최순주, 영업 홍득수, 재정 신성구 등으로 구성되었다.

1928년 6월 29일 창간 당시부터 허정이 신문사 사장으로 발간에 주역하다가, 구미위원회 활동을 돋기 위해 워싱턴으로 가면서, 경영책임을 이기봉에게 넘겼다. 1929년 편집과 제작을 담당한 장덕수도 영국 런던으로 유학을 떠나면서, 창간 2년만인 1930년 6월 폐간되었다. [\[순국\]](#)



『삼일신보』 창간 기사(『신한민보』 1928년 7월 21일자)



필자 김도영

국민대학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독립기념관 연구위원, 문화재전문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미주한인 사회의 한국독립운동』, 『미주한인 사회의 독립운동가』, 『권승렬 평전』, 『일제의 한국농업정책사연구』, 『일왕을 거둔 독립투사 이봉창』 등이 있다.